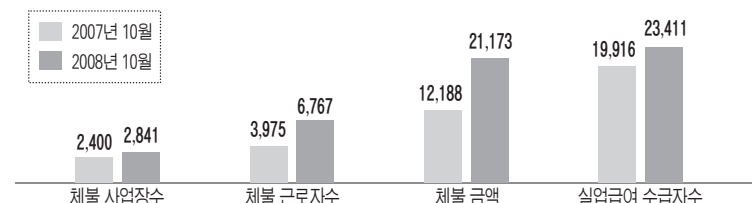


광주·전남 임금 제때 못받은 근로자 1년 전보다 70% 폭증

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올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1년 전보다 70% 이상 급증하면서 해당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광주·전남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추이 (단위:명, 백만원)



불況 여파 ... 실업급여 신청자도 18% 증가

2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광주·전남에서 임금 받지 못한 근로자는 6천767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3천975명)에 비해 70.2%(2천793명)나 증가한 것으로, 고유가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주·전남에서만 체불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2만명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또 임금체불 건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수차례는 점에서 지역내

실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노동청에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여럿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의 총 체불임금은 211억7천만원으로, 전년 동기(121억8천만원)보다 73.8%(89억9천만원)나 늘었다. 또 지난해 현재 광주·전남에서 임금을 밀린 사업장은 2천841곳에 달한다. 고용시장 불완전으로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도산·폐업 등 비자발적 요인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지급되는 돈이다. 올해 광주·전남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2만3천411명으로, 1년 전(1만9천916명)보다 17.6%(3천495명) 증가했다. 또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655억3천만원으로, 1년새 23.6%(125억2천만원)나 늘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체불임금과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장기 불황 속에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등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또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는 회사의 자금경색과 직결되고 감원 등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의 비자발적 실업자는 1만7천571명으로, 1년새 27.3%(3천763명) 늘었다. 광주지방노동청 김학수 팀장은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사업주들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경기를 많이 타는 식당 등 자영업과 건설업종 등의 고용위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창업보육센터' 새로 10곳 지정

중기청, 내년까지 ... 디자인 분야 등 286억 지원

지난 2005년 이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신규지정이 중단됐던 창업보육센터(BI) 10곳이 내년까지 새롭게 지정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예와 디자인 등 업종별로 특화된 창업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간 공대 중심으로,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던 창업보육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서 5곳, 내년엔 BI 분야에서 5곳 등 모두 10곳을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을 갖춘 대학교

연구소 등이다.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면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입주기업의 교육·자금·관료에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정적·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보육사업 관련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내년엔 286억원으로 증액해,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니트 조끼로 따뜻한 겨울을 ...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3일 5층 매장에서 실내 난방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카디건과 니트 조끼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美 자동차 구매 가이드 웹사이트

기아 카렌스 '최우수 추천차' 선정

현대·기아 8종도 함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생산하는 카렌스(수출명 톤도)가 미국의 자동차 구매가이드 웹사이트인 '컨슈머가이드 오토모티브'로부터 '최우수 추천차'로 선정됐다. 현대·기아차는 자사제품 9개 차종이 이 웹사이트에 의해 '최우수 추천차(Best Buy)' 및 '추천차(Recommended)'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컨슈머가이드 오토모티브가 이번에 발표한 '2009 최우수 추천차' 선정작업은 미국내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선정작업은 품질신뢰성과 성능, 디자인, 편의성, 가격 및 연비, 중고차 가치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현대차는 베르나(수출명 엑센트)와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쏘나타·제네시스·싼타페·안티라지 등 6개 제품이 추천차종에 선정됐다. 기아차의 경우 프라이드(수출명 리오)와 그랜드카니발(수출명 세도나) 등이 추천차종으로 뽑혔고 카렌스(수출명 톤도)는 최우수 추천차로 선정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불황에도 카드 사용 늘었다

하루 이용건수 1400만건 ... 작년보다 26% 급증

韓銀, 3분기 지급결제 동향

올해 3·4분기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카드 이용건수가 1천400만건을 돌파했다.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선 전례 카드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분기 중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각종 카드 이용실적은 하루평균 1천408만건, 1조3천400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건수는 26.1%, 금액은 18.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1천182만건, 1조2천600억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각각 22.5%와 16.6% 늘었다. 이용항목별로는 물품과 용역구매가 건수와 금액 면에서 23.4%와 19.5% 늘었으며 현금서비스는 3.4%와 5.7%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9천375만장으로 작년동기대비 3.1% 증가했지만 가맹점수는 1천539만개로 9.2% 감소했다. 가맹점수 감소는 카드사 합병으로 중복 가맹점이 제외된 데다 일부 카드사가 실적이 없는 가맹점을 작년 통계에서 일괄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하루평균 219만건, 770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각각 49.8%와 48.1% 급증했다. 전체 카드 가운데 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은 건수 기준 15.6%, 금액기준 5.8%로 작년동기보다 2.5%포인트와 1.3%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광주 수완지구 14만4천㎡ 공급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80필지 경쟁입찰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수완지구의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80필지(14만4천㎡)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상업용지 4필지(2천975㎡) ▲주유소용지 1필지(1천614㎡)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814㎡) ▲준주거용지 4필지(1천659㎡) ▲주차장용지 2필지(2천530㎡) ▲문화시설용지 1필지(5천515㎡) 등이다. 용도별 m당 예정 단가는 상업용지 209만원, 준주거용지 150만원, 주차장용지 83만4천원 등이다. 또 주유소용지는 24억5천3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4억1천700만원이 예정 가

격이다. 이번 추천 및 입찰은 토지공사의 토지청약시스템(buy.plus.or.kr)에 의해 이뤄지며, 추천 신청은 다음달 15일, 입찰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된다. 문의 062-958-7200. 토지공사는 이들 토지 외에도 분양 연립주택 6필지, 블록형 단독주택 4필지, 점포 겸용 단독주택 51필지, 주거 전용 단독주택 5필지 등을 추천 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블록형 단독주택은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도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울 아파트 단지에

'남도 김장시장' 연다

전남농협 오늘부터 이틀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4~25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2008 남도 김장시장'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무·배추·마늘·양파·고추·대파 등 김장채소류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판매하게 된다. 무·배추 외에도 최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남산 짙잎배추를 비롯해 정갈류,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고춧가루·배·사과·단감·쌀 등 다양한 농산물이 이번 행사에 선보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경매투자상담/권리분석/수익성분석/금융, 세무상담. 인베스트 경매컨설팅.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10 2층 (법원정문 앞). 문의/의/전/화 062)236-0900. 전라남도 상임 변호사 나물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집합니다.(남/여). >아파트, >주목, >주택사실(모텔), >토지, >오피스텔, >농가관련시설.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기쁜 ₩19,500. 경제가 웃는 날까지 쭉-욱 계속 됩니다. 서울관광카바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예약:062 226 9334)